

# 북방변경지대의 차마고도를 다녀오다\*

변 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 국문초록

본고는 2023년 6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근대 이전 한-중 물질문명 교류의 언어학적 탐색’ 일반연구팀이 중국 팀과 함께 중국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에서 진행한 답사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답사지에서 마주하게 된 것들에 대하여 보고서 형식으로 이미 제출이 되었으나, 북방 차마고도의 의의, 답사 경로 선정 이유 등, 보고서 형식을 뛰어넘어 한중교류사적 측면에서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답사기 형식으로 이를 남긴다. 차철 중심으로 몽골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되짚어 보며, 한국어의 ‘말’ 및 ‘사과’가 전파된 언어학적 경로를 그 속에서 추적한다.

■ 주제어 ■ 차마고도, 실크로드, 북방변경지대, 한-중 물질문명 교류, 한중교류사, 차철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5334)

\*\* jwbyun@knou.ac.kr

## 1 들어가며

본고는 2023년 6월 14일에서 18일 사이 진행된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 관련 기행문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일반공동연구 ‘근대 시기 이전 한-중 물질문명 교류의 언어학적 탐색’ 팀은, 이 기간 동안 중국의 학자들과 함께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한-중 물질문명 교류의 주요 루트인 차마고도에 대한 국내의 인식은 중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며, 특히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는 국내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는 한-중 교류사 측면에서 연구 가치가 크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류의 흔적을 찾는 작업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지난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유물은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흐른 뒤에는 남아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답사에서 수레가 여러 차례 지나가면서 돌 위에 자연스럽게 남겨진 차철(車轍)의 흔적을 여러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는 완전한 루트로 조각을 맞출 수 있도록, 중국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교역로의 여러 조각들, 그 중에서도 특히 언어학적인 단편들을 확보해 보는 것이 이번 답사의 목적이었다. 연구 책임자로서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 기행 내용과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의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공유해 보고자 한다.

## 2 경로와 참가자

답사에는 한국팀과 중국팀이 함께 했다. 중국팀은 베이징대학교와 허베이대학의 연합 팀이었다. 중국팀을 이끈 최고 책임자인 베이징대학의 천바오야(陈保亚) 교수와 그의 배우자인 허팡(何方) 편집인은 2019년 한국에서도 필자 및 노혜정(서울대), 신원철(안양대) 교수와 함께 한국 야생차 유입 경로 관련 답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이 답사가 이어지기를 희망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곧바로 새로운 답사로 이어지지 못 하였다. 결국 새로운 답사로 연결되기까지는 4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이번 답사에서 한국팀은 섬서역사박물관 및 2019년 말에야 개방된 중국고고박물관을 시안을 먼저 방문한 후 베이징으로 이동하여 베이징대학 및 허베이대학 팀과 합류하였다. 아래 경로는 이중 순수한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 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기술한 것이다. 날짜별 경로를 간략히 기술해 보면, 아래와 같다.

- 6월 14일: 허베이(河北) 지밍역(鸡鸣驿), 양위안현(阳原县) 니허만(泥河湾)국가고고유적공원, 산시(山西) 다통(大同)
- 6월 15일: 윈강(云冈)석굴, 가오산진(高山镇) 화이더차오(怀德桥), 여우위현(右玉县) 박물관, 사후커우(杀虎口)<sup>1)</sup>, 내몽고(内蒙古) 후허하오터시(呼和浩特市)
- 6월 16일: 내몽고대학교 몽고학 학원, 내몽고박물관, 우촨현(武川县) 북위 황가 제천 유적지, 얼렌하오터시(二连浩特市)
- 6월 17일: 귀먼(国门), 이린역참(伊林驛站) 박물관, 얼렌하오터시(二连浩特市), 우란차부(乌兰察布)

1) '시커우(西口)'로도 불린다.

- 6월 18일: 더성바오(得胜堡), 장자커우시(张家口市) 대경문(大境门)

한국에서 참가한 이들은 모두 한국연구재단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이다.<sup>2)</sup> 중국 측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sup>3)</sup>

- 천바오야(陈保亚): 베이징대학 중문과 교수. 중국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중점 연구기지 베이징대학 중국언어학 연구중심 주임. 중국민족언어학회 부회장.
- 리짜이취안(李载权): 베이징대 의학부 교수, 생물화학자, 유행병학자.
- 덩충밍(丁崇明): 베이징사범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 방언학자.
- 허팡(何方): 베이징대학 ‘베이징대학학보(北京大学学报)’ 고참편집.
- 타오자오진(杜兆金): 취푸사범대학(曲阜师范大学) 교수, 알타이어와 실험음성학 전공.
- 푸린(傅林): 허베이대학 문학원 부교수, 중국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중점 연구기지 허베이대학 송사(宋史)중심 연구원.
- 량신제(梁新杰), 후빈신(胡缤心), 리위안란(李渊然), 량후이(梁慧), 천용신(陈泳欣), 추이멍(崔梦): 대학원생

2) 필자를 비롯, 노혜정(서울대학교), 신세리(한국외국어대학교), 신원철(안양대학교), 한경호(성균관대학교)이다. 이 답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노혜정 교수가 중국 측과 2023년 초부터 수차례 e-mail과 전화로 연락하며 상세 일정과 경로를 상의하였다.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깊이 감사드린다.

3) 참석자의 소속 및 직책은 답사 당시 기준이다.



[사진 1] 답사 경로를 이미지화한 단체 티셔츠  
(참가 대학원생들이 직접 디자인)

### 3 답사 세부경로

답사 첫날(6월 14일), 오전 10시 경에 허베이성(河北省) 장자커우시(张家口市) 화이라이현(怀来县) 지밍역(鸡鸣驿) 북문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금~원대 혹은 명초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참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을 드문드문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여말~선초 사이에 지밍역과 한반도가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 받았는지, 이들의 교역 경로는 어떠하였을지, 이에 대한 연구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중년의 현지 여성 해설자 통솔 아래 순이청얼지에(顺驿城二街)부터 타이산행궁(泰山行宫), 원창궁(文昌宫), 재신전(财神殿), 역승서(驿丞署), 관제묘고희대(关帝庙古戏台), 지휘서(指挥署), 하가대원(贺家大院)<sup>4)</sup> 등 고대 건축물을 순서대로 관람

4) 하가대원(贺家大院)은 1900년 서태후가 서쪽으로 도망갈 때 묵었던 곳이다.

하였다. 이곳 건물은 보존 및 수리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곧 무너질 듯한 집들도 많았다.

정오가 다 되어 고역소잔(古驿小棧)에서 요기 후, 지명역(鸡鸣驿) 서성문(西城门)에 올랐다. 이런 곳을 찾아올 이가 없겠다 싶긴 했지만, 사람이라고는 정말로 오로지 우리 일행 뿐이었다. 인도를 따라 성문에 오르니 시야가 갑자기 탁 트였다. 기온은 거의 40도에 달하고 해가 강렬했지만 바람이 불어 그늘진 곳은 시원하였다. 지명산(鸡鸣山)이 멀리 보였는데, 산은 척박했다. 북성문(北城门)에서 다시 동성문(东城门)으로 이동하여, 가파른 마도(马道, 말이 짐을 실어 나르던 길)를 따라 성벽에서 내려왔다(사진 2 참조). 마도를 비롯하여 곳곳에 차철(车辙), 즉 수레 바퀴 흔적이 육중한 돌 위에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러한 차철은 이번 차마고도 기행지 곳곳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다. 성벽을 따라 다시 북문(北门)으로 나와 방문을 마무리했다.



[사진 2] 지명역의 마도

차를 타고 양위안현(阳原县) 니허만(泥河湾) 국가고고유적공원으로 향했다. 니허만(泥河湾) 유적공원은 지질연대광장, 전시관, 고고유적전광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시관은 민간에서 경영하는 박물관이었다. 니허만(泥河湾)의 고대 인류 유적은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인 에밀 리상(Emile Licent)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후에 지질학자와 고고학자들이 이곳으로 와서 연구 조사를 하였는데, 특히 프랑스인 피에르 테아르 드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과 장 뵘브토(Jean Piveteau)가 1930년에 『(중국)니허완의 포유류 화석 Les mammifères fossiles de Nihowan(Chine)』을 출간하여, 세계에 니허만의 존재를 알리는 데에 기여했다.

기행 첫날이 다 저물기 전에 허베이(河北)성에서 산시(山西)성으로 서둘러 진입하여, 다통(大同)에 도착했다. 구름 한점 없이 맑은 날씨에, 한국에서는 더 이상 보기도 어려워진 제비떼가 무척이나 많이 날아 다니고 있어, 정겨우면서도 이국적인 풍취가 물씬 느껴졌다.

이튿날(6월 15일)은 윈강(云冈) 석굴로 향했다. 석굴 건설의 이유는, 북위 통치자들이 불교를 숭상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석굴의 주요 부분은 북위가 낙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완공된 것으로,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석굴 내부의 중요한 조상은 보존이 비교적 양호하였고 모두 촬영 금지였으며 관람객으로 붐비었다. 석굴 외부에 노출된 조상은 대부분 심하게 풍화되었다. 흔히 볼 수 있는 명칭 시기의 조상과 비교하였을 때 윈강석굴은 초기 석굴로, 외래문화

5) Buffetaut, Eric. & Angst, Delphine. 2021

영향을 받은 것이 더욱 분명하였다. 석상의 생김새만 보더라도, 선비족 등 북방 민족들이 북위를 비롯하여 청대까지 조대를 거듭하면서 만든 석굴 불상임이, 또한 당시 다민족 사회 건설을 위하여 불교라는 종교가 이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원강 석굴은 조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덧지어졌지만, 남북조시대 중 북위 때에 만들어진 불상이 집중된 석굴이기에, 마치 신라 시기 문물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다량의 비천문 등이 동굴에 새겨져 있어, 삼국시대 이래 한반도에 끼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석굴 외곽 아래는 오래된 길로, 지금은 차철이 깊이 패여 남아있는 길을 보존하여 특별히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지명역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차철과 관련된 모형이 마침 원강 석굴 한쪽에 전시되어 있어, 좋은 교육 자료가 되었다(사진 3 참조).



[사진 3] 고대 수레와 차철 모형(원강 석굴)

가오산진(高山镇) 화이더차오(怀德桥)는 단공식(单拱式) 돌다리 형식이다. 동서 방향이며 고대에 산시(山西)에서 사후커우

(杀虎口)로 나와 변방 밖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도로 유물이다. 원래는 진흙으로 막혀 있었으나, 2018년에 발굴되었다. 교량 본체에는 “화이더차오(怀德桥)”라고 쓰여진 편액이 있다. 그리고 교량 노면에는 역시 수레 흔적인 차철이 비교적 넓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치 아랫쪽에는 특이하게도 약 1m 남짓의 거대한 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음을 아치 아래로부터 확인 가능하다. 푸린(傅林) 교수의 설명에 따르자면, 다른 옛 다리에도 이러한 손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민간 전설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중국의 장귀라오(张果老)라는 도교 신선 또는 루반(鲁班)이라는 기원전 약 500년 경의 걸출한 건축가가 있었는데, 장귀라오가 이 다리를 누르고, 루반이 받쳐 올렸다는 민간 전설을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 더러 있다는 것이다. 푸린 교수의 생각에는 손 자국이 아마도 교량이 무너질 징조를 보일 때 이를 표시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부처님 손자국을 조각하여 강 요괴를 진압하려 했다는 민간 전설 또한 이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불교의 영향은,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 길의 정체성 부여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듯하다. 교량의 북측에는 철로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방문하는 동안 화물 열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장면도 목도할 수 있었다. 마치 화이더차오(怀德桥)의 과거와 현재가 눈 앞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듯하였다.

이어 산시성(山西省) 여우위현(右玉县)에서 여우위현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전시 곳곳에 “차마고도”라는 명칭을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와 관련하여 관이 이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여우위현(右玉县)에 위치하고 있는 사후커우(杀虎口)에 들렀는데, 이곳은 진몽(晋蒙) 두 성의 경계 지점에 놓여 있는 곳으로, 명청시기 상업의 주요 통로에 놓인 핵심 노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날(6월 16일)은 내몽고로 접어들었다. 오전에는 내몽고 대학에서 8명의 내몽고 학자들과 약 1시간여 동안 교류하였다. 특히 시보어, 키르키즈어, 다우르어 구사자들로부터 언어학적 정보를 확인하고, 이후의 추가적 교류를 약속하였다. 이어, 후허하오터시(呼和浩特市)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몽고자치구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내몽고박물관에 들러, 선사시대를 비롯 전근대의 유목민족(동호, 흉노, 선비, 거란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람하였다. 특히 거란은 고려시대의 정치 문화적 관계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행 중 여진의 후예인 기탄 전공자인 푸린(傅林) 교수로부터 거란 문자 및 이들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설명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사진 4).



[사진 4] 거란 문자를 설명하는 푸린

오후에는 우촨(武川) 바딩(壩頂)의 북위 황가 제천 유적지(北魏陰山皇家祭天遺址)로 향했는데, 이곳은 형상과 구조 측면에서

중원 왕조의 제사 예법과 북방 유목 민족 제사 전통을 결합하였기 때문에, 중국 고대 황가 제천 발전사 연구와 북위 사천 예절 제도에 진귀한 실물 증거가 된다. 현장은 아직 발굴 중이기 때문에,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 1980년대에 북위 황가 제천 유적지가 발견되었지만 계속 발굴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2020년 10월, 내몽고자치구(内蒙古自治区) 문물고고연구소에서 후허하오터시(呼和浩特市) 우촨현(武川县)의 북위 황가 제천 유적지에 대해 고고 발굴을 진행하였다. 이것이 중국에서 첫 번째로 이뤄진 북위 황가 제천 유적지 발굴이다. 2022년 7월 30일, 우촨현(武川县) 산마루의 북위 황가 제천 유적지 고고 발굴 작업에서 또 새로운 발견을 하였는데, 들어가는 길 우측에 아궁이, 말 뼈(턱뼈, 이빨 등 포함), 사슴뿔, 나무기둥이 탄 유물 등이 드러났다. 불로 태운 뒤 붉은색 벽돌 형태의 흙벽돌과 벽돌 모양의 벽 등이 드러났다.

넷째날(6월 17일), 중국 연구자들은 귀먼(国门)을 향했으나, 외국인인 우리는 중국법 상 함께 동행할 수 없었다. 중국 내에는 모두 총 12 군데의 국경문인 귀먼(国门)이 있는데, 그중 두 군데는 내몽고에 있다.

한국 연구팀은 이린역참(伊林驛站) 유적지부터 합류가 가능했다. 박물관이 마침 근처에 있어 함께 들렀는데, 이린역참 유적지는 내몽고자치구(内蒙古自治区) 얼렌하오터시(二连浩特市) 동부 9km 밖에 있었으며,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를 잇는 장자커우(张家口)-얼렌하오터(二连浩特)-쿠룬(库伦, 지금은 몽골 우란파토우울란바托) 노선의 중요한 유적지이다. 이곳은 선진 이래로 흉노를 비롯한 유목민족이 목축을 해온 지역으로서, 당대

이래로는 차마고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하다. 청대에 최대 인원 6-7천명, 보유 낙타만도 2만 마리에 달했던 대표적 진상(晉商)인 다성궤이(大盛魁)는 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울란바타르와 모스크바까지 운송하기도 하였는데, 경로상 한 반도까지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근대 동북아 지역의 문화 교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곳이다.

관람이 끝난 후 셔틀버스를 기다릴 때 해설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방언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한 조사를 실시했다. 본인은 처음에 사용하는 방언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얼렌하오터(二連浩特) 현지인”이라 하였다. 동시에 “얼렌하오터(二連浩特) 방언”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해설자가 사용하는 방언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지역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타지인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일종의 현지 공용어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역참 유적지와 같은 구역에 공룡지질국가공원(恐龍國家地質公園)이 있는데, 이곳은 민국시절 이래 동북아에서 가장 오래된 공룡 화석이 발견된 곳인 동시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룡 화석이 발굴된 곳이기도 하여 함께 참관하였다.

이로써 내몽고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는데, 허베이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내몽고를 벗어나는 여정이 밤까지 국도를 쉬지 않고 달리며 이어졌다. 이곳은 농경 지역을 지나 목축 지역으로 이어지는 곳인데, 초원으로 진입 전에 큰 사극림(沙棘林)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목축 지역으로 진입해서도 초원의 식물들이 점차 사라지고 황량한 사막으로 이어졌다. 드문드문 소떼와 양떼가 보였지만, 풀이 키가 작기도 하고 워낙 드물어

먹이로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사람 역시 고된 길이었다. 도로를 한참 달려야 겨우 물류 트럭을 하나둘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일행이 탄 최신식 자동차로도 멀고 힘든 길인데, 옛 사람들의 교류길은 얼마나 고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한반도로까지 이어졌을 벡터(vector)적 성격을 가늠하는 것으로, 일행은 휴게소도 화장실도 없는 고통을 달래었다.

마지막날(18일)은 지닝(集宁)으로 이동하면서 몽골과의 국경선 및 내몽고 주변 지역 환경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내몽고를 완전히 벗어나, 더성바오(得胜堡)에 들렀는데, 이곳은 따통시(大同市) 신릉구(新荣区) 바오즈만향(堡子湾乡)에 위치하며, 산시성(山西省) 가장 북단에 위치하고 시내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다. 더성바오(得胜堡)는 명대 만리장성 다통진(大同镇)의 중요한 요충지로, 예로부터 진북(晋北)과 내몽고(内蒙古)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였다. 융경 5년(1571년), 명나라는 더성바오(得胜堡)에서 성대한 책봉의식을 거행하였는데, 몽골(蒙古) 수령 알탄 칸(俺答汗)을 이때 순의왕으로 봉하였다. 이로부터 몽골과 한족은 서로 전쟁을 벌이지 않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벽 건너는 바로 몽골로 연결된다. 마을 주민들은 외지로 옮겨가고 겨우 몇 집만 남아 있었는데, 베이징대 천바오야(陈保亚) 교수의 주도로 현지인으로부터 즉석에서 방언(산시성의 주류 방언인 진방언晋语)을 조사하고, 방언 제공자인 원어민 리우시엔타오(刘仙桃, 1970년생, 여, 최종학력 소학교 3학년)을 인포르만트(informant, 현지 방언 제공자)로 하여 현지 방언으로 더성바오(得胜堡)의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이곳에 남아 있는 유적 자체는 비교적 형태가 완

정하나, 일부는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성바오를 뒤로 하고, 우리는 베이징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허베이(河北) 장자커우시(張家口市)로 접어들어 다징먼(大境門)을 마지막 방문지로 하여,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 기행을 마무리하였다. 다징먼은 상당히 변화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돌길에 뚜렷이 남아 있는 차철을 사람들이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투명 아크릴로 단단하게 보호 시설을 설치해 둔 것이 인상적이었다. 앞서의 유적지에서는 우리를 제외하고는 방문객도 거의 없을뿐더러, 자연 풍화 속에 차철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과 큰 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다징먼 방문이 이번 답사의 마지막이라 하기에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길 곳곳에 무너져 흔적만 겨우 남아 있는 장성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저 멀리 몽골에서부터 더성바오에서 다시 다징먼으로, 그리고 장성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루트라는, 출발할 당시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새로이 눈에 들어왔다. 이 루트는 곧장 한 반도로도 연결되는 주요 교역로 역할을 했을 것이다.

#### 4 북방 차마고도의 의의

답사 기간 동안 곳곳에서 확인한 차철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는데, 이들은 현재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이번 답사 기간 동안 인적이 드물고 개발이 더딘 곳에서 차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징먼과 같이 이미 개발이 시작된 곳에서는 겨우 아크릴 아래쪽으로 짧은 흔적을 확

인할 수 있었다(사진 5). 더성바오 역시 이미 개발을 위하여 주민 대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것으로 보아, 현재 남아 있는 차철과 같은 흔적은 앞으로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사진 5] 차철(다징먼과 더성바오)

국내에서도 ‘차마고도’라는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은 2007년에 처음 방영된 KBS의 기획 프로그램이다.<sup>6)</sup> 관찰자적 시점이 돋보이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하여, 마지막 마방의 모습이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갈채를 받았다 (신철호, 2015). 국내에서 ‘차마고도’라는 이 이름은 말 그대로 ‘차와 말을 바꿔 교역하였던 옛길’로 수동적으로 인식 되어, 이 명칭의 유래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 보통, 사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명칭이 있기 때문에, 당대(唐代)에도 이미 존재했던 길이라면 그것의 명칭 역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명칭은 약 30년 전에야 비로소 만들어진 것으로, 이번 답사를 실질적으로

6) KBS 홈페이지에서 현재 ‘<https://search.kbs.co.kr/?keyword=차마고도>’로 검색이 가능하다.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6-0181&program\\_id=PS-0000743181-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code=05](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6-0181&program_id=PS-0000743181-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code=05) (2024.1.12. 검색)

이끈 베이징대 천바오야(陈保亚) 교수를 비롯한 6인이 바로 이 명칭을 만든 주역들이다 (陈保亚, 1992; 燕元, 2019; 姚月、马骁, 2023).<sup>7)</sup> 애초 차마고도는 중국에서도 운남, 사천, 티베트를 잇는 남쪽의 실크로드를 지칭하면서 명명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차마고도’의 경로라고 할 때에는 대체로 이를 따른다 (신철호, 2015; 연호탁, 2016).

차마고도는 당 태종 정관(貞觀) 15년(641)에 문성(文成) 공주가 토번의 제33대 황제인 송첸감포와 혼약을 맺으면서 예물로 차를 가지고 가 차문화를 보급시켰다는 기록,<sup>8)</sup> 또한 당송(唐宋) 이후 호시(互市) 형태를 통하여 말과 차를 정량화하여 교역한 기록 등을 통하여 역사적 실체를 확인 가능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남쪽의 실크로드에 해당하는 경로이며, 이번 답사지였던 북방변경지대 차마고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아쉽게도 아직 이렇다 할만한 언급이 없다.

그런데 이 경로를 언어학적으로 추적해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구어로는 ‘말’이라 하지만, 한자어로는 ‘마(馬)’라고 하며, 중세 국어에서는 ‘물’이라고 한, 동일한 동물을 지칭하는 이 단어는 중국어에서 유입된 ‘마’와 몽골어에서 기원한 ‘morin’의 영향에서 비롯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그것의 실질적인 유입 경로가 이를 증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한국어 역사언어학의 현주소이다.

중국어 방언 조사에 있어, 여러 사물을 지역별로 어떻게 발음하고 표현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해바라기, 토마토

7) 중국에서는 이들을 ‘차마고도 6군자(茶马古道君子)’라고 부른다.

8) 연호탁(2016:2)은『西藏王統記』의 기록을 근거로 삼고 있다.

등 지역 편차가 큰 식물명 또한 주요한 조사 대상이 된다.<sup>9)</sup> 그런데, ‘사과’는 중국 방언 연구에 있어, 그 가운데 크게 주목받지 못 하고 있다. 그 이유는 “苹果(píngguǒ)”라는 중국어 단어가 중국 내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자어인 한국어의 ‘사과’는 어디로부터 유입된 단어인가. 사과는 서역에서 중국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초기부터 산스크리트어인 ‘핏부’ 또는 ‘핑구리’와 유사한 ‘빈과(蘋果)’ 또는 ‘평과(苹果)’라고 하다가 나중에 ‘사과(査果)’라 부르기도 했다고 하며, 실물로서의 사과는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이 효종 때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묘목을 가져 왔다고 한다(한상기, 2020: 317).<sup>10)</sup> 그런데 이때의 묘목 전수가 대중적인 사과 재배로 이어지지 못 하였으며, 그 후의 기록 또한 없다는 점이다. 결국 1883년이 되어 인천 일본영사관에 사과가 심어졌고, 1905년 함경도 관찰사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사과 묘목 6,000주를 도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과가 경제 작물로 재배된 것은 1904년 이후 일본 사람들이 전국에 걸쳐 재배하면서부터라고 한다(앞의 책: 318).

그렇다면 한국어 ‘사과’는 일본어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어에서도 이것을 ‘リンゴ’라 하며 한자로는 ‘林檎’가 된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일본어에서는 차라리 영어를 음차할지언정, ‘사과’와 관련된 한자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침 이번 답사 여정에서 바로 이 ‘沙果’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6).

9) 曹志耘(2008)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결과이다. 중국의 모든 단어가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차가 큰 단어를 선별하여 연구하고 있다.  
10) 인평대군과 관련된 내용은 『남강만록(南崗漫錄)』을 인용하고 있다.



사진 6. 사과 말림(더성바오 근처 휴게소)

더성바오(得胜堡) 현지인의 말에 의하자면, 이 지방에서도 “苹果(píngguǒ)”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만, 크기가 작고 산도가 높은 품종에 대해서는 특히 ‘沙果’라 부른다고 한다. 이 주변에 척박하고 초원으로 진입 전에 사극림(沙棘林)이 있어, 아마도 그와 관련된 명칭으로 불린 것이 아닌가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경로를 통하여 한반도로까지 사과가 전파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만하다.

국내에서는 차마고도라고 하면, 남방 실크로드와 동일시하는 인식이 팽배했다. 하지만 이번 답사에서 베이징대 천바오야(陈保亚) 교수는, 남방 차마고도도 엄연히 존재하며 또한 차마고도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북방 실크로드가 이와는 별개의 바로 또 다른 차마고도에 해당함을 확인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에 대한 명명이라 할 수 있다. 굳이 기존의 차마고도와 구분하자면, 기존에 ‘차마고도’로 알려져 있었던 것은 남방 차마고도라 해야 할 만큼, 북방변경지대 차마고도의 존재에 대하여 새로이 인식해 볼 가치가 있다. 북방 실크로드(norther silk road)에 대한 언급은 기존

에도 여러 연구 결과가 있었으나, 지도상으로도 너무나 두루뭉술하게만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답사를 통하여 특히 한반도와 직결되는 동시에 몽골과 그 너머까지 연결 가능한 경로를 상세하게 살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최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번 답사에 함께 참여하였던 베이징대 리짜이취안(李載權) 교수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같은 감염병의 전파·확산 형태가 고대에도 차마고도와 같은 교역 경로와 사실상 일치하였을 것으로 본다는 말을 덧붙였다. 특히 조선 시대에 말(馬)과 관련된 전염병 관련 기록은 향후에 연구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차마고도와는 또 다른 차마고도, 즉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와 관련한 교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 5 마치며

이 글은 2023년 6월 14일에서 18일까지 4박5일 동안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를 방문한 후 그 내용을 간략히 기록한 기행문이다. 중국의 학자들과 함께 조사를 실시하면서, 한중교류사 연구로서의 연구 가치에 주목하였다. 기존에 한국에서 남방 차마고도가 ‘차마고도’로 널리 알려지기는 했으나, 북방변경지대를 따라 몽골에서 내몽골, 산시(山西), 허베이(河北)를 거쳐 한반도까지 연결되었을 북방 차마고도 유적지를 직접 답사함으로써,

북방 차마고도의 경로를 새로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로는 허베이(河北) 지밍역(鸡鸣驿)-양위안현(阳原县) 니허만(泥河湾) 국가고고유적공원-산시(山西) 다통(大同)-윈강(云冈)석굴-가오산진(高山镇) 화이더차오(怀德桥)-여우위현(右玉县)-사후커우(杀虎口)-내몽고(内蒙古) 후허하오터시(呼和浩特市)-얼렌하오터(二连浩特)-이린역참(伊林驛站)-얼렌하오터시(二连浩特市)-우란차부(乌兰察布)-더성바오(得胜堡)-장자커우시(张家口市) 다징먼(大境门)에서 베이징까지 연결된다. 이는 기존에 한국에서 알려졌던 차마고도와는 구별되는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 경로로, 한반도에까지 연결되는 벡터성을 보여준다. 한반도에서 몽골, 심지어 그 너머로까지 연결 가능한 경로로, 차철을 중심으로 중국에 있는 차마고도 북방변경지대의 사라져 가고 있는 유적지를 기록할 수 있었다. 한국어의 ‘말’ 및 ‘사과’가 전파된 언어학적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논문 투 고 일: 2024.01.12.
- 심사 완료 일: 2024.02.06.
- 게재 확정 일: 2024.02.20.

## 참고문헌

- 신철호 (2015). 「한·중 민족지영화의 서사양식 비교 연구: KBS < 차마고도 >와 YNTV < 차마고도 >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vol.30 No.2 pp.247-287.
- 연호탁 (2016). 「唐朝 중국과 吐蕃의 茶馬交易」, 『차문화산업학』 제33집, pp.1-34.
- 이후석 (2022). 「고조선 문화권 차마구의 전개 초론 - 외래 계통 차마구의 유입과 변용 -」, 『고고학』 vol.21, no.2, pp. 5-39.
- 한상기 (2020). 『작물의 고향』. 서울: 에피스테메.
- 曹志耘 (2008). 『漢語方言地圖集：詞彙卷』, 北京: 商務印書館
- 陈保亚 (1992). 「论茶马古道的历史地位」, 『思想战线』 pp.74-77.
- 燕元 (2019). 「陈保亚：茶马古道走出的语言学家」, 北京大学校报. 2019.5.13. <https://news.pku.edu.cn/bdrw/23f6cc4bbe3f42beb9b6d158237fcf1d.htm>
- 姚月、马骁 (2023). 「陈保亚：于茶马古道上，笃行语言研究之路」, 北京大学校报. 2023.7.11. <https://news.pku.edu.cn/xwzh/df128523d6614f96b7695c695506021a.htm>
- Buffetaut, Eric. & Angst, Delphine (2021). A Giant Ostrich from the Lower Pleistocene Nihewan Formation of North China, with a Review of the Fossil Ostriches of China.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Map-of-part-of-northern-China-showing-location-of-the-Nihewan-Basin-WNW-of-Beijing-with\\_fig1\\_348785927](https://www.researchgate.net/figure/Map-of-part-of-northern-China-showing-location-of-the-Nihewan-Basin-WNW-of-Beijing-with_fig1_348785927)

Teilhard de Chardin, Pierre. and Piveteau, Jean (1930). Les  
mammifères fossiles de Nihowan (Chine). Paris: Masson et  
Cie <https://search.worldcat.org/ko/formats-editions/26060480>



## Abstract

# Visiting the Tea Horse Road of the Northern Frontier

**Byun, Jiwon**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This paper records the field trip conducted in June 2023 by the research team on ‘Linguistic Search for Material Civilization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a before Modern time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long with the Chinese team, in the northern border area of China’s Tea Horse Road. As it was deemed necessary to go beyond the report format and reinforce it in terms of the history of Korea-China exchanges, such as the significance of the Northern Tea Horse Road and the reason for selecting the field trip route, so we submit it in the form of a field trip report. Focusing on Wagon Wheel traces, we look back on the route from Mongolia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inguistic path through which the Korean words ‘word’ and ‘apple’ were spread.

| **Key Words** | Tea horse road, Silk Road, Northern border area, Korea-China material civilization exchange, Korea-China exchange history, Wagon Wheel traces